

김정일 사망... 한반도 정세 대격랑

지난 17일 심근경색으로...北 '김정은 영도자' 첫 언급
李대통령 NSC·긴급국무회의...전군 비상경계태세 발령

▶ 관련기사 2·3·4·5·6·8·9·10·11면 본보 어제 낮 호외 발행

김정일 연보

1941년 2월 백두산 일명 (영강도 삼지연)에서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서 출생. 러시아 연해주 태생으로 있음

1945년 소련서 귀국
1961년 7월 노동당 입당
1966년 당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
1967년 5월 당 선전선동부 문화예술지도과 과장
1973년 6월 당 선전선동부 부장
1974년 2월 당 정치위원회 위원에 오르며 후계자로 확정
1990년 10월 제6차 당대회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
1982년 김일성 주석의 나이와 30년 차이를 만들기 위해 생년을 1942년으로 변경해 신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함해북도 송림)

1983년 중국 후야오방(胡耀邦) 당시 공산당 총서기 초청으로 후계자로서 첫 방중
198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함경남도 흥성)
199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함경북도 무산)
199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서 군 최고사령관에 임명
1992년 4월 군 원수 칭호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1997년 10월 당 총서기 추대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직 재추대
2000년 5월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첫 방중
2003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2008년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짐
2009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4월 국방위원장직 재추대
2010년 9월 제3차 노동당 당대표자회의서 당 비서국 총서기,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장에 임명
201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 중국 방문
2011년 12월 19일 17일 오전 8시30분 열차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를 발표.

연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2012년을 불과 12일 앞두고 69세를 일기로 급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이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19일 오후 8시 30분 급병으로 열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김일성 주석 사후 1998년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일 시대를 연 지 13년 만에, 1974년 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37년 만에 김 위원장의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확인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긴급국무회의를 열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상황을 주시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군은 전군에 비상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의 한반도라인은 비상 상황대기에 들어갔고,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긴급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다.

북한 매체는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과 인민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100(2011)년 12월17일 8시30분에 현 지도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계신다"며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후계자 김정은을 영도자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의 병과 서거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에서 "17일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다"며 "발병 즉시 모든 구급치료대책을 세웠으나 17일 8시30분에 서거하셨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을 포함해 232명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이름을 제일 먼저 호명해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할 것임을 내비쳤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시신을 금수산 기념공원에 안치하고 28일 평양에서 영결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29일까지는 애도기간으로 정해 29일 중앙추도대회를 열기로 했다. 외국조문단은 받지 않기로 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사망소식을 전하기 앞서 오전 10시부터 '특별방송' '중대보도'를 예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보고받은 직후 긴급 NSC를 주재한 뒤 "아무 동요없이 경제 활동에 전념해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하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전방지역에 RF-4 대북 정찰기 등 정찰·감시자산을 증강해 대북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한미연합사와 함께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 경찰에 경계강화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평양의 눈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19일 평양시내에서 북한 주민들이 땅을 치며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 급락·환율 급등... 금융시장 출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19일 금융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채권 금리도 투자 심리가 약해져 크게 올랐다. <관련기사 11면> 19일 코스피는 지난 주말 증가보다

떨어진 477.61로 마감했다. 이는 10월 20일(469.98) 이후 두달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16원 남게 폭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6.2원 오른 174.8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170원 대로 오른 것은 지난 10월10일(1,171.40원) 이후 처음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2학년도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가군'
[원서접수] 2011.12.22(목)-27(화)
www.kwangshin.co.kr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깊은 바다의 깊은 보습을 전하는
마린 프리스티지 뷰티 브랜드 리리코스-
이제 광주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OPEN

LIRIKOS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제품으로 백화점 및 뷰티어터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광주신세계 백화점 062-324-2424 • 현대백화점 광주점 062-552-2324 / 중동점 032-623-2170 / 대구점 053-245-2130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87 / 잠실점 02-2143-7115 / 안양점 031-463-2169 / 인천점 032-450-2158 / 대전점 042-601-2125 / 전주점 063-289-3188 / 포항점 054-230-1139 / 대구점 053-660-3026 / 부산 본점 051-810-3192 / 동래점 051-668-4184 / 청량리점 02-3707-1133 / 미아점 02-944-2138 / 일산점 031-909-3785 / 구리점 031-550-7183 에서 만나보세요 구입처 문의: (주) 아모레퍼시픽 고객 서비스 센터 080-023-5454 www.lirikos.co.kr